

동작구,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공모사업」 선정

-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하게, 더 든든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2015. 7월 시범동, 대방동을 시작으로 2016. 7월 전 동으로 확대됩니다 -

◀ 이렇게 달라집니다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주민들의 일상속으로 들어가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플래너

1. 어르신복지플래너 : 65세 도래 및 70세 전체 어르신
 - 1) 65세 도래 어르신 :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사전안내 후 방문, 예방적 건강관리 및 노인복지서비스 안내
 - 2) 70세 전체 어르신 : 방문간호사가 사전안내 후 방문, 포괄적 건강평가를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2.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 출산가정
보건소 주관,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사전안내 후 방문, 보육복지정보 및 건강서비스 제공
3.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 은둔 취약계층
구역담당공무원(사회복지공무원)과 통반장 또는 동 복지협의체 위원이 동행하여 이웃간 돌봄 살펴보기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적극 해소

우리동네주무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소개받고 서로서로 연결시켜 주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복지상담전문관

상담역량이 뛰어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복지상담전문관으로 배치하여 초기 상담부터 맞춤형 종합 상담 실시로 내방 민원인에게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이 주인인 동주민센터

주민리더와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 함께 모여, 동에서 필요한 해결과제를 찾고, 활용가능한 인적물적자원을 찾아 스스로 실행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 자조기금, 주민 공간, 마을경제 영역을 포괄하는 마을 자산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주민 소통의 중심 열린 공간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찾아가면 동주민센터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주민편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뀝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수다 떨어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 ☎ 820-9111

◀ 2015. 7월부터 시작한 시범동(상도1, 대방)의 행복한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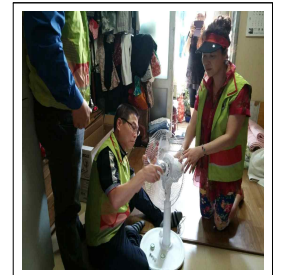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들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오늘도 방문을 약속한 어르신에게 다시 한 번 확인 전화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동주민센터를 찾아와 어렵게 꺼내었던 이야기를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들어주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동행한 방문간호사는 기초건강검진, 치매검진 및 건강상담까지 해준다. 누군가 나와 우리 가정을 살피고 돌보아 주는 것만 같아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주민들 소리가 들려온다.

폐지수집으로 하루 5천원도 안되는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는 최OO 할머니를 우리동네 주무관과 복지통장이 길거리에서 만나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복지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주민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해드린다.

매년 여름이면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삼계탕을 대접하는 「사랑의 삼계탕」 행사가 올해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로 오지 못하는 저소득어르신들을 복지플래너가 직접 방문하여 삼계탕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 마음 구석구석까지 살펴드렸다. 올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으로 주민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실현되고 있다.



찾아가는 상도1동주민센터 ☎ 820-2473 찾아가는 대방동주민센터 ☎ 820-2761